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2016. 06. 13 |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 smj@saesayon.org

□ 조사 개요

- 본 보고서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자료를 활용함. 해당자료 중 가장 최신인 2016년 3월 자료를 사용하여 기초분석한 후 전체와 여성의 임금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거나 ILO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최저임금 수혜자인 여성노동자들의 현황을 보고자 함.

표 1.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 성별 현황

분 류	전 체	남 성	여 성
생산가능인구(명)	43,313,444	21,229,001	22,084,443
경제활동인구(명)	26,955,360	15,619,954	11,335,406
취업자수(명)	25,800,258	14,918,835	10,881,422
실업자(명)	1,155,102	701,118	453,954
비경제활동인구(명)	16,358,084	5,609,047	10,749,037
임금노동자수(명)	19,232,564	10,809,872	8,422,692
시간당 평균임금(원)	13,619.94	16,045.99	10,506.30
최저임금 미달자(명)	2,640,476	961,095	1,679,380
최저임금 수혜자(명)	1,846,518	664,091	1,182,42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참고 : 시간당 평균임금 = 최근3개월평균임금/[일한시간]*(365/7/12)

- 표 1에 나타난 2016년 3월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전체 생산가능 인구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는 모두 남성이 400만 명 이상 많음.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50만명 이상 많음.
- 임금노동자수는 19,232,564명인데 그중 남성이 56.21%이고, 여성이 43.79%를 차지함.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기준으로 약 13,620원이고, 남성은 약 16,046원, 여성은 약 10,506원으로 시간당 5,500원정도의 임금차이가 남.
- 2016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임. ILO기준 최저임금 수혜자의 범위는 시간당 5,427원 이상 6,633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임.
- 최저임금 미달자는 전체 2,640,476명인데 여성이 63.60%, 남성이 36.40%를



차지하고 있고, 최저임금 수혜자는 전체 1,846,518명 중 여성이 64.04%, 남성이 35.96% 비중이어서 미달자와 수혜자 모두 여성이 많음.

□ 2016년 최저임금 미달자 노동자 현황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의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노조가입여부 성별 현황을 아래 표 2~표 6에 나타냄.
- 최저임금 미달자의 성별 비율은 앞선 표 1에서와 같이 남성이 961,095명으로 36.4%, 여성이 1,679,380명으로 63.6% 비중임.

표 2.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산업별 현황

산업 (대분류)	남성	여성	합계
농업, 임업 및 어업	18,494	50,913	69,406
제조업	59,793	177,307	237,1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	1,729	1,729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732	908	2,640
건설업	92,332	8,837	101,169
도매 및 소매업	133,180	278,390	411,570
운수업	74,596	7,527	82,123
숙박 및 음식점업	140,353	382,715	523,06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269	8,239	18,508
금융 및 보험업	6,790	23,668	30,458
부동산업 및 임대업	53,739	30,952	84,69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850	13,972	24,82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3,790	128,265	272,05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8,278	78,624	126,903
교육 서비스업	30,357	72,470	102,82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532	199,643	246,1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7,883	33,880	61,76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2,126	139,465	201,59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	41,876	41,876
합계	961,095	1,679,380	2,640,47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 표 2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 여성의 수가 많고, 19개의 산업대분류 중 14개 산업에서도 여성이 많음. 숙박 및 음식점업에 전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의 19.81%가 몰려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은 15.59%를 차지한 도매 및 소매업이고, 세 번째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에 10.3% 분포되어 있음.
- 남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사업시설관리에 제일 많은 수(143,790명으로 남성 중 14.96%)가 분포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140,353명, 15%), 세 번째로는 도매 및 소매업(133,180명, 14%)이었음.



- 여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많은 산업은 첫번째가 숙박 및 음식점업(382,715명, 여성 중 23%)이고, 도매 및 소매업(278,390명, 16.58%)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보건업(199,643명, 11.89%)임.
- 남성대비 여성이 많은 비율을 보이는 분야는 첫 번째가 보건업(여성 8/10%, 남성 18.90%)이고, 두 번째가 금융 및 보험업 (여성 77.71%, 남성 22.29%)이며, 세 번째는 제조업(여성 74.78%, 남성 25.22%)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시설과 가구내 고용활동 분야에서는 남성이 관측되지 않고 여성 노동자만 관측됨.

표 3.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직업별 현황

직업 (대분류)	남성	여성	합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1,456	99,044	160,500
사무 종사자	26,774	104,014	130,787
서비스 종사자	126,323	413,045	539,368
판매 종사자	96,517	272,075	368,593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6,763	2,609	9,37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65,164	51,728	116,89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6,901	41,998	148,899
단순노무 종사자	471,196	694,867	1,166,063
합계	961,095	1,679,380	2,640,47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 표 3은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를 직업별로 나타낸 것으로써, 단순노무종사자가 전체의 44.1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함. 사무 종사자가 20.43%로 뒤를 이었고, 서비스 종사자가 13.96%로 세 번째 많은 비중임. 남성과 여성 모두 단순노무 종사자에 각각 남성 중 49.03%, 여성 중 41.38% 분포해 많은 수의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단순노무 직업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남성은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서비스 종사자 (13.14%)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음. 그 다음으로는 판매(10.04%), 세 번째로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1.12%)가 많음.
- 여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24.60%가 서비스 종사자에 몰려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판매 종사자(16.20%)가 많았음.
- 남성대비 여성이 많이 보이는 분야는 사무직(여성 79.53%, 남성 20.47%), 서비스직(여성 76.58%, 남성 26.19%), 판매(여성 73.81%, 남성 26.19%)가 두드러짐. 여성대비 남성이 많이 분포된 분야는 농업어업숙련 종사자(남성 72.16%, 여성 27.8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남성 71.79%, 여성 28.21%)임.



표 4.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종사상지위별 현황

종사상지위	남 성	여 성	합 계
상용근로자	214,122	230,864	444,986
임시근로자	536,724	1,142,109	1,678,833
일용근로자	210,250	306,407	516,657
합 계	961,095	1,679,380	2,640,47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 표 4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의 종사상 지위별 현황인데, 임시근로자가 절반 이상(63.58%)이며, 임시 및 일용 근로자를 합하였을 경우 전체의 83.15%로 많은 수의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의 고용현황이 불안정할 것으로 추측됨
- 남성과 여성 모두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많으며, 남성대비 여성으로 볼 경우 임시근로자에 여성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여성 68.03%, 남성 31.97%).

표 5.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사업체규모별 현황

사업체 규모	남 성	여 성	합 계
1명-4명	370,152	799,232	1,169,384
5명-9명	245,285	376,228	621,513
10명-29명	187,334	303,788	491,122
30명-99명	98,815	143,284	242,098
100명-299명	43,803	40,509	84,312
300명 이상	15,706	16,340	32,046
합 계	961,095	1,679,380	2,640,47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 표 5는 사업체 규모별 현황으로 예외없이 사업체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많았음.
- 5명 미만 사업장에 남성은 38.51%, 여성은 47.59% 분포해 있었고, 남성대비 여성으로 보면 여성이 68.35%, 남성이 31.65%였음.
- 10인 미만으로 확대해 보면 전체의 67.83%가 몰려있었음. 여성은 거의 70%, 남성은 64%정도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음.

표 6.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	남 성	여 성	합 계
없음	852,253	1,542,618	2,394,871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63,977	119,431	183,408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11,395	8,292	19,687
가입함	33,470	9,040	42,509
합 계	961,095	1,679,380	2,640,47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 표 6에서 보이듯이 노동조합이 없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2,394,871명으로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 중 90.70%임. 압도적으로 많음. 여성은 91.86%, 남성은 88.68%가 무노조 기업에서 근무중임.
- 노동조합이 있지만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18만 3천여명으로 무노조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생각하면 97%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움.
- 또한 노조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것에 비해 노조가 있으면 가입한 것이 남성은 3배, 여성도 1000명 가까이 많은 것으로 보아 노조가 있다면 가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2016년 최저임금 수혜자 노동자 현황

- 앞서 언급한 ILO기준의 최저임금 수혜범위(90%~110%)에 있는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노조가입여부에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성별 현황은 아래 표 7~표 11에 나타냄.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성별 비율은 앞선 표 1에서와 같이 남성이 664,091명으로 35.96%, 여성이 1,182,427명으로 64.04%를 차지함.
- 전체적인 양상은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과 비슷하게 나타남.
- 표 7과 같이 최저임금 수혜 노동자 중 여성의 수가 많고, 19개의 산업대분류 중 15개 산업에서도 여성이 많음. 숙박 및 음식점업에 전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의 22.48%가 몰려있어 미달자와 같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은 16.96%를 차지한 도매 및 소매업이고, 세 번째는 제조업에 11.37% 분포되어 있음.
- 남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제일 많은 수(128,606명으로 남성 중 19.37%)가 분포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도매 및 소매업(99,247명, 14.94%), 세 번째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79,922명, 12.03%)으로 미달자에서 가장 많았던 부분이 세 번째임.
- 여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많은 산업은 첫번째가 숙박 및 음식점업(286,473명, 여성 중 24.23%)이고, 도매 및 소매업(214,006명, 18.10%)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보건업(156,856명, 13.27%)으로 미달자와 같은 순임.
- 남성대비 여성이 많은 비율을 보이는 분야는 첫 번째가 보건업(여성 91.22%, 남성 8.78%)이고, 두 번째가 금융 및 보험업 (여성 76.18%, 남성 23.82%)이며, 세 번째는 숙박 및 음식점업(여성 69.02%, 남성 30.98%)임.
- 가구내 고용활동 분야에서는 남성이 관측되지 않고 여성 노동자만 관측고, 건설업에서는 남성이 90% 이상 몰려있음



표 7.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산업별 현황

산업 (대분류)	남 성	여 성	합 계
농업, 임업 및 어업	12,892	19,210	32,102
제조업	67,551	142,377	209,92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81	1,241	2,82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77	1,100	1,977
건설업	72,105	7,231	79,336
도매 및 소매업	99,247	214,006	313,252
운수업	53,633	7,929	61,562
숙박 및 음식점업	128,606	286,473	415,07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622	5,984	12,606
금융 및 보험업	3,396	10,861	14,25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814	21,994	37,80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726	14,877	26,60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9,922	108,859	188,78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8,145	29,451	57,596
교육 서비스업	16,399	52,516	68,9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097	156,856	171,9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139	28,578	48,71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341	63,093	93,43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	9,790	9,790
합 계	664,091	1,182,427	1,846,5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 표 8에서 보이듯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에는 미달자와 달리 관리자도 관측됨. 남성만 1,055명 있음. 전체적으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34.70%로 제일 많고, 서비스 종사자가 22.20%로 그 다음을, 판매 종사자가 14.75%로 세 번째를 기록함

표 8.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직업별 현황

직업 (대분류)	남 성	여 성	합 계
관리자	1,055	-	1,05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6,004	99,617	135,621
사무 종사자	19,942	112,090	132,032
서비스 종사자	102,704	307,200	409,905
판매 종사자	69,632	202,738	272,370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4,410	751	5,16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68,357	39,996	108,35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0,629	50,655	141,283
단순노무 종사자	271,358	369,381	640,738
합 계	664,091	1,182,427	1,846,5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남성은 서비스종사자에 15.4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 13.65%, 판매 종사자에 10.49% 분포됨. 여성은 서비스종사자에



25.98%, 판매 종사자에 17.15% 분포됨.

- 남성 대비 여성이 많은 직업은 사무직(여성 84.90%, 남성 15.10%), 서비스(여성 74.94%, 남성 25.06%), 판매(여성 74.43%, 남성 25.57%)임. 반대로 여성대비 남성이 많이 분포된 직업은 농업어업숙련 종사자(남성 85.45%, 여성 14.55%)임.

표 9.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종사상지위별 현황

종사상지위	남 성	여 성	합 계
상용근로자	177,245	324,616	501,862
임시근로자	339,367	712,000	1,051,367
일용근로자	147,478	145,811	293,289
합 계	664,091	1,182,427	1,846,5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 표 9는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나타낸 것으로, 임시근로자가 56.94%, 일용근로자가 15.88%로 및 일용 근로자가 전체의 72.82%를 차지하고 있음. 최저임금 미달자에 비해서는 적은 비율이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많으며, 남성대비 여성으로 볼 경우 임시근로자에 여성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여성 67.72%, 남성 32.28%).

표 10.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사업체 규모별 현황

사업체 규모	남 성	여 성	합 계
1명-4명	211,308	465,979	677,287
5명-9명	203,203	307,183	510,386
10명-29명	120,114	233,921	354,035
30명-99명	73,459	125,651	199,110
100명-299명	42,789	37,300	80,089
300명 이상	13,218	12,392	25,610
합 계	664,091	1,182,427	1,846,5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 최저임금 수혜범위에 있는 노동자들도 예외없이 규모가 작을수록 많은 수의 노동자수가 몰려있음을 표 10을 통해 알 수 있음.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와의 차이는 분포의 정도가 달라져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이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수혜자들은 30인 미만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보임.
- 남성 최저임금 수혜자는 5인 미만에 31.82%, 10인 미만에 62.42%, 30인 미만에 80.50%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최저임금 수혜자는 5인 미만에 39.41%, 10인 미만에 65.39%, 30인 미만에 85.17%가 집중되어 있어



여성이 더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1.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	남 성	여 성	합 계
없음	583,878	1,088,761	1,672,638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48,811	70,180	118,992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10,163	8,387	18,550
가입함	21,239	15,099	36,339
합 계	664,091	1,182,427	1,846,5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 표 11에서 보이듯이 노동조합이 없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90.58%로 압도적으로 많음. 여성은 92.08%, 남성은 87.92%가 무노조 기업에서 근무중임.
- 노동조합이 있지만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약 11만 9천 여명으로 무노조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생각하면 97%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움(여성 98.01%, 남성 95.27%).
- 최저임금 수혜자 또한 노조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것에 비해 노조가 있으면 가입한 것이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보아 노조가 있다면 가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 미만 및 수혜자 현황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이슈보고서 중 김유선(2015)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보았던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 및 수혜자 현황을 다양한 고용형태별 모습으로 보고자함.
- 해당 기준의 장점은 비정규직을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가내근로를 중복을 제외하고 더하여 산출하여 비정규직을 다양한 고용형태로 나누어서 분석 가능한 것임.
-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전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 미달자는 남성은 2배 이상, 여성도 아주 높은 비율을 기록함. 특히 정규직 비율이 매우 크게 줄어든 것이 보임.
- 여성 최저임금 미달자는 92.3%가 비정규직이며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여성은 남성과 달리 전체 임금근로자 대상이 있을때도 절반이 넘는 54.3%가 비정규직임.
- 최저임금 수혜자 범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 보이고 있음. 남성은 여



성보다 한시근로, 파견 및 용역에서 비율이 높음.

- 가내근로의 경우 전체에 비해서는 작은 비중이지만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관측되지 않거나, 여성이 10배 이상으로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12. 비정규직의 성별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현황1 (단위 : 천 명)

	수 (천 명)						
	전체	남 성			여 성		
		전체	미달	수혜	전체	미달	수혜
임금노동자	19,233	10,810	961	664	8,423	1,679	1,182
정규직	10,627	6,870	68	76	3,557	81	140
비정규직	8,393	3,818	858	562	4,575	1,550	1,003
입시근로	8,382	3,891	744	621	4,491	1,308	1,106
장기입시근로	4,545	2,039	468	325	2,506	993	618
한시근로	3,521	1,652	378	224	1,869	538	358
(기간제)	2,810	1,311	274	143	1,499	368	245
시간제근로	2,222	604	269	156	1,618	670	400
호출근로	758	540	105	70	218	129	55
특수고용	502	144	23	6	358	63	29
파견용역	910	448	123	68	462	129	95
(파견)	216	90	10	5	126	34	20
(용역)	694	358	113	63	336	95	75
가내근로	44	5	3	-	39	27	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표 13. 비정규직의 성별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현황2 (단위 : %)

	비율 (%)						
	전체	남 성			여 성		
		전체	미달	수혜	전체	미달	수혜
임금노동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5.3	63.6	7.1	11.4	42.2	4.8	11.8
비정규직	43.6	35.3	89.3	84.6	54.3	92.3	84.9
입시근로	43.6	36.0	77.4	93.5	53.3	77.9	93.6
장기입시근로	23.6	18.9	48.7	48.9	29.8	59.1	52.3
한시근로	18.3	15.3	39.3	33.7	22.2	32.0	30.3
(기간제)	14.6	12.1	28.5	21.5	17.8	21.9	20.7
시간제근로	11.6	5.6	28.0	23.5	19.2	39.9	33.8
호출근로	3.9	5.0	10.9	10.5	2.6	7.7	4.7
특수고용	2.6	1.3	2.4	0.9	4.3	3.8	2.5
파견용역	4.7	4.1	12.8	10.2	5.5	7.7	8.0
(파견)	1.1	0.8	1.0	0.8	1.5	2.0	1.7
(용역)	3.6	3.3	11.8	9.5	4.0	5.7	6.3
가내근로	0.2	0.0	0.3	-	0.5	1.6	0.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3월



□ 요약

- 최저임금은 여성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 중상사상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큼.
-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자 수가 많았음, 보건에서는 여성 최저임금 수혜자 집중이 컸음.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사업체규모는 작을수록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가 많았고, 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이를 통해 취약계층인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를 작업장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가내근로의 경우 전체중의 비중은 적으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분야에서 여성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모두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불안정한 고용, 작업장에 보호장치 미비 등)
- 최저 미달자와 수혜자는 기본 특성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최저임금의 영향력은 저임금 노동자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임. 📌



2016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6월 14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경제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몰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